

재즈를 듣다 9

부기우기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1980년, 가수 현숙 씨가 ‘정말로’란 노래를 불러 히트시켰다. 당시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기였다. 나는 초등학교 아닌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다. 흥겹기 그지없던 그 노래를 따라 부르던 평범한 동네 아들 중 하나였다. 10여년 세월이 흐른 뒤 재즈에 본격적인 관심을 두기 시작하자 비로소 이 노래가 ‘부기우기’에 속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뿐만 아니라 건아들이 부른 ‘금연’, 신촌블루스 멤버였던 윤명운 씨가 부른 ‘김치랙(Rag)’ 등등... 즐겨 들곤 했던 꽤 많은 곡이 부기우기이거나 그 영향을 받은 음악임을 알았다.

재즈 피아노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우선 뉴욕을 기반으로 발전한 스트라이드(Stride) 또는 할렘(Harlem) 스타일이다. 사전에서 ‘Stride’를 검색하면 ‘성큼성큼 걷다’는 뜻이 있다. 랙타임의 윈

손 주법을 계승해 이런 명칭이 붙은 듯하다. 여기에 오른손으로 즉흥 연주를 하는 방식으로 젤리 롤 모튼, 듀크 엘링턴을 거쳐 아트 테이텀(Art Tatum)에서 혁신이 일어났고, 버드 파웰(Bud Powell), 오스카 피터슨(Oscar Peterson)으로 이어진 주류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피아노 주법은 시카고를 기반으로 발전한 부기우기다. 1920년대 후반 등장해 1930년대에 큰 인기를 누렸던 피아노 연주 기법이다. 대도시 집값이 오르자 집세도 덩달아 뛰기 시작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흑인들은 소위 ‘집세 파티(= Rent Party)’를 열어 돈을 충당하곤 했다. 이 과정에서 부기우기가 나왔다고 알려졌다. 집세 파티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신명 나게 춤추기에 적절한 장르였던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스윙 댄스 중 ‘린디 홉(Lindy Hop)’은 찰스 린드버그(Charles Lindbergh)



지미 얀시 / 출처 : wbssmedia.com



파인톱 스미스 / 출처 : oldtimeblues.net



슈가 칠 로빈슨 / 출처 : youtube.com

가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비행기로 횡단한 사건이 대서특필되자 그의 이름을 본 따 붙여진 이름이지만 춤 동작과는 전혀 무관한, 생뚱맞은 작명이 아닐 수 없다. 당시 댄서들이 조금은 학자적 태도를 견지해 신중을 기했다면 린드버그보다는 부기우기에 맞춰 홉(hop)을 하는 춤이라는 뜻으로 ‘부기우기 홉’이 훨씬 적절하다고 본다.

‘재즈’란 말과 마찬가지로 부기우기의 기원 또한 확실치 않다. 아프리카 언어에서 기원했으리라고 추정한다. 부기우기 연주법은 서양 음악 지식이 전혀 없는 흑인이 난생처음 피아노란 악기를 마주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그들에겐 건반 악기가 여러 소리를 모아 놓은 타악기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거기에 블루스 선율을 가미함으로써 그와 같은 경쾌한 장르가 탄생했으리란 추정이다. 부기우기란 말은 몰라도 연주를 듣는 순간 누구나 “아! 이거!”라며 금방 친숙함을 느낄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 이 음악의 선구자는 지미 얀시(Jimmy Yancey)다. 그는 시카고 토박이로서 원래는 탭댄서였다고 한다. 15세 때 피아노를 독학으로 익혀 집세 파티의 최고 인기 연주자로 활동했다. 최초 부기우기 음반은 파인톱 스미스(Clarence Pinetop Smith)가 1928년 녹음한 ‘파인톱의 부기우기(Pinetop’s Boogie Woogie)’로 알려졌다. 또 유튜브에서 ‘Sugar Chile Robinson’으로 검색을 해 보면 재밌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열 살이 채 안 된 흑

인 꼬마가 피아노로 ‘칼레도니아(Caledonia)’, ‘넘버스 부기(Numbers Boogie)’ 같은 전형적인 부기우기를 연주한다. 이 음악의 절정은 1938년과 1939년 겨울, 카네기홀에서 ‘영가에서부터 스윙까지(= From Spirituals to Swing)’란 제목으로 두 차례 행해진 공연을 통해서다. 이로 인해 전국적인 화제와 인기를 얻었다. 블루스 가수 조 터너(Big Joe Turner)가 ‘피트야 굴러버려(= Roll ‘Em Pete)’를 불렀고, 미드 루스 루이스(Meade Lux Lewis)가 피아노로 연주한 ‘honky tonk 기차 블루스(= Honky Tonk Train Blues)’, 알버트 아몬즈(Albert Ammons)가 연주한 ‘스와니강 부기(= Swanee River Boogie)’를 유튜브에서 들어볼 수 있다. 부기우기 인기는 빅밴드 시기에도 어느 정도 이어졌다. 글렌 밀러 밴드의 최고 히트곡인 ‘인 더 무드(In the mood)’가 그렇다.

부기우기를 재즈 안에서만 바라보면 스트라이드 주법에 대하여 상대적 비주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범위를 확대했을 때 이것이 20세기 대중음악에 끼친 영향력은 실로 지대하다. 다른 아닌 록앤롤(Rock & Roll)이 사실상 부기우기의 적자(嫡子)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가 처음 재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1990년대에 서점에서 살 수 있는 한국말로 된 재즈책은 고작 3권 밖에 없었다. 그 중 에드워드 리(Edward Lee)라는 저자가 쓴 ‘재즈 입문’이란 책 96쪽에 “록앤롤은 기본적인



루이스 조단 / 출처 : wikipedia.org



잭 맥베아 / 출처 : wbssmedia.com



얼 보스틱 / 출처 : pastdaily.com

으로 블루스를 백인이 변형시킨 것이다. 그것은 백인의 컨트리 스타일과 흑인의 점프 블루스가 융합함으로써 생겼다”는 문장이 있었다. 여기에 나오는 ‘점프 블루스’라는 게 뭔지 몹시 궁금했지만 당시엔 궁금증을 해결해 줄 자료도, 음반도 없었다. ‘느린 블루스보다 좀 경쾌한 느낌인가?’, ‘어쿠스틱 기타 대신 전기 기타를 쓴 걸까?’ 등을 상상만 해 볼 뿐이었다. 20여년이 흐른 뒤 구글 검색 결과 ‘점프 블루스 = 부기우기 리바이벌(boogie-woogie revival)’이란 결정적 힌트를 얻었다. 즉 반짝 인기를 얻고 나서 잠잠해진 몇

년 후 점프 블루스란 형태로 부활한 것이다. 유튜브에서 루이스 조단(Louis Jordan)의 ‘칼레도니아’, 잭 맥베아(Jack McVea)의 ‘인플레이션 블루스(Inflation Blues)’, 얼 보스틱(Earl Bostic)의 ‘특별 배달 스톱프(= Special Delivery Stomp)’ 등을 검색해 들어보면 어떤 의미인지 금방 감이 올 것이다.

1985년 개봉한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에선 주인공 마티 맥플라이가 ‘바닷속 매혹의 댄스 파티’에서 ‘자니 비 굿(Jonny B. Good)’을 열창한다. 극



‘백 투 더 퓨처’에서 ‘자니 비 굿’을 열창하는 장면 / 출처 : rollingstone.com



척 베리 / 출처 : wikiwand.com



리틀 리처드 / 출처 : rollingstone.com



엘비스 프레슬리 / 출처 : wikipedia.org

중에서는 ‘마빈 베리’(아마도 가공인물일 듯)가 이 노래를 전화로 사촌인 척 베리(Chuck Berry)에게 들려준다. 물론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이지만 랍앤롤의 태동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접근한 영화가 또 있을까? 이뿐만 아니라 (비치보이스가 표절한 원곡인) ‘달콤한 작은 16세(= Sweet Little Sixteen)’, ‘랍앤롤 음악(= Rock and Roll Music)’ 등 척 베리가 부른 노래의 원형(?)이 점프 블루스였던 것이다. 같은 시기에 리틀 리처드(Little Richard)가 등장해 부른 ‘투티 프루티(Tutti Frutti)’, ‘어머니 몰리 양(Good Golly Miss Molly)’, ‘루쉴(Lucille)’, ‘쭉쭉 뽕뽕 샬리(= Long Tall Sally)’ 등도 그렇다. 원래 이런 음반의 발매는 흑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머잖아 10대 백인 청소년을 사로잡았다. 1955년 개봉한 영화 ‘폭력교실(= Blackboard Jungle)’은 당시 미국 사회에 잠재해 있던 모순을 드러낸 작품이다. 여기에 쓰인 빌 헤일리의 ‘온종일 흔들어(= Rock Around the Clock)’가 크게 히트했다.

상황이 무르익자 ‘썸 레코드’라는 음반 기획자는 흑인 음악을 흥내 내 부를 줄 아는 잘생긴 백인을 물색했다. 그때 트럭 운전사인 엘비스 프레슬리가 눈에 띄었다. 젊고, 미남이고, (너무 가난해 보통 백인 동네와는 거리가 먼 멤피스 흑인 거주 구역에서 성장한 덕분에) 흑인식 억양과 창법을 겸비한 완벽한 아이돌이

등장한 것이다. 엘비스의 첫 번째 히트곡인 ‘상심의 호텔(= Heartbreak Hotel)’은 전형적인 블루스다. 뒤이어 TV에 출연해 다리와 엉덩이를 떨며 노래하는 모습으로 빅히트를 기록한 ‘사냥개(= Hound Dog)’는 원래 빅 마마 손튼(Big Mama Thornton)이라는 리듬 앤 블루스 가수가 부른 부기우기다. 이 외에도 ‘잔인해지지 마(= Don’t Be Cruel)’, ‘모두 섞어버려(= All Shook up)’, ‘파란 가죽 신발(= Blue Suede Shoes)’, ‘감옥에서 흔들어(= Jailhouse Rock)’ 등이 알고 보면 모두 부기우기이거나 그 영향 아래 있는 곡들이다.

일반적으로 랍앤롤은 흑인의 리듬 & 블루스와 백인의 컨츄리 & 웨스턴 음악이 주축이 돼 탄생했다고 한다. 컨츄리 & 웨스턴은 엘비스의 발라드 히트작인 ‘부드럽게 사랑해 줘(= Love Me Tender)’나 ‘오늘 밤 외롭니?(= Are You Lonesome Tonight?)’ 같은 부드러운 백인 취향과 무엇보다 또 다른 백인 스타였던 버디 홀리(Buddy Holly)를 염두에 둔 견해가 아닐까 한다. 그 또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랍앤롤의 본류는 부기우기, 점프블루스를 계승한 척 베리, 리틀 리처드의 음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즈’의 원래 스펠이었던 ‘재스(Jass)’가 당시 품위 있는 교양인은 결코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굉장히 저

속한 말이었던 것처럼 콕앤롤 또한 단순히 ‘흔들고 구른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교하다’와 관련한 표현 중 가장 질 낮은 표현을 떠올렸다면 그것이 본래의 콕앤롤 뜻이다. 이런 ‘저질 음악’이 10대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청교도가 세운 나라인 미국에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중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학부모-교사 연합회(PTA, Parent-Teacher Association)에서 콕앤롤 가수들을 마약 소지, 미성년자 성관계 등 다양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상황이 급변하자 리틀 리처드는 목사로 변신해 위기를 모면한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자발적으로 입대를 해 “저는 나쁜 놈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수 세력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미 PTA가 틀어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대중음악의 대세는 재즈에서 콕앤롤로 옮겨졌다.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영국에선 비틀즈(Beatles)와 롤링스톤즈(The Rolling Stones)가 등장해 소위 브리티시 인베이전(British Invasion)을 이끌었다. 이후 콕앤롤은 하드락, 펑크락, 프로그레시브락, 헤비메탈 등으로 변모했고, 1970년대가 되자 다시 재즈와 결합해 ‘퓨전 재즈(Fusion Jazz)’ 시대를 열었다. 🎧

부기유키를 재즈 안에서만 바라보면
스트라이드 주법에 대하여 상대적
비주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범위를 확대했을 때
이것이 20세기 대중음악에 끼친
영향력은 실로 지대하다.



현숙의 정말로



윤명운의 김치lack



지미 안시



파인톱 스미스



슈가 칠 로빈슨



슈가 칠 로빈슨의
‘영가에서부터 스윙까지’



루이스 조던의 ‘칼레도니아’



잭 맥베아의
‘인플레이션 블루스’



알 보스틱의
‘특별 배달 스톱프’



‘백 투 더 퓨처’ 중
‘자니 B 곳’을 부르는 장면



리틀 리처드의
‘쭉쭉빵빵 샐리’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냥개’



엘비스 프레슬리의
‘감옥에서 흔들어’

부기유키 관련 QR 코드